

보주 안에 무량보주 들어있어 '누금세공' 기법 탄생

鍍金細工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매화점(梅花點)→무량보주(無量寶珠) ㉔



앞 회에서 보드시피 매화점이 무량보주를 가리킨다. 중앙에 보주가 있고 그 보주 안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광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여래의 정수리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것과 같고, 삼천대천세계를 압축한 건축에서 발산하는 무량한 보주와 맥을 같이 한다. 보주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가장 강하게 가장 작게 압축한 조형이므로 여래와 법당에 일관된 표현원리가 가능하다. 이제 여러분도 점점 보주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여의주(如意珠) 역시 통속화된 그릇된 용어이므로 여의주를 연상하면 보주의 본질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보주라는 용어 역시 지금까지 수 천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아낌없이 버려야 보주의 본질에 겨우 다가갈 수 있는 문(門)에 이를 수 있다.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마도 시대가 올라갈수록 보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면 믿기 어려울 테지만, 신비하게도 보주의 본질은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에 이미 정착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백제의 무령왕릉에 얼마나 많은 무량보주가 많은지 모른다. 무령왕릉의 칠(漆) 목판의 표면에 수많은 금속제 무량보주의 조형이 있다. 학자들은 어느 꽃이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그저 단순히 꽃 장식(花裝飾)이라 부르고 그 의미는 밝히지 않고 지나친다. 그러나 옛 조형에는 그 당시 우주생성론이 투영되어 있으며, 아무리 간단한 장식이라도 의미 없는 조형은 없다. 오히려 간단한 조형에 중요한 상징이 깃들어 있으므로 도리어 상징을 읽어내기 어렵다.

중앙의 보주 주변에 거리를 두고 있는 조형은

금속 공예로 만들 때에는, 백제 무령왕릉의 왕의 목판에서처럼 전면(全面)을 가는 금판(金板)으로 육각수문(六角水文: 귀갑문龜甲文이라 흔히 부르는데 들린 용어임을 이미 설명했다.)을 고정시키고 그 육각수문 안에 각각 무량보주 조형을 두었으니 '물에서 화생하는 무량보주'라는 엄청난 상징이 눈앞에 나타난다. 여래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듯이, 세속의 왕 역시 하늘이 내린 초월적 존재이므로 관 속의 몸으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는 것을 무령왕의 옷칠을 한 목판이나 죽판(死板)에도 표현하여 두었다.(그림 ①-1, 그림 ①-2)

그러면 증거가 있는가? 있다. 반구형의 보주 주변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의 보주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금실을 꿰어 둥근 판을 고정시켰다. 이런 모양을 영락(瓔珞: 구슬목걸이)이라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원판(圓板)은 구형(球形)의 보주를 간단히 편편한 둥근 원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②-1, 그림 ②-2) 신라시대와 백제시대의 금관과 금동관에도 이러한 장식이 수없이 달려있으나 영락이 아니고 모두 보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올라보 인신하면 왕관(冠)의 고차원적 개념이 회복되어 큰 의미를 띠게 된다.

무령왕릉에서는 보주에 직접 잘라진 알갱이를 잔뜩 붙인 조형이 있다. 흔히 누금세공(鍍金細工, filigree: 작은 금 알갱이를 붙이면서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한 금목걸이라 부르지만 이 역시 놀라운 무량보주를 보여준다.(그림 ③) 조선시대 단청의 씨방 도안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경이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러므로 누금세공이란 제작기법은 문명의 발생지에서 일찍부터 개발된 것으로 '보주의 개념'의 역사는 매우 오래고 모든 장르에서 이미

표현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로지 기법에만 관심을 두어왔다. 일반적인 설명을 읽어보기로 한다. 작은 알갱이란 바로 무량한 보주를 가리킨다.

'세금세공(細金細工)·입금세공(粒金細工)·필리그리(filigree)'라고도 부른다. 특히 신라에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귀고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반지·팔찌·드리개[垂飾]·구슬·곱은옥(曲玉)의 금모(金飾) 등 장신구와 칼자루장식·말띠드리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귀고리에서는 달개[瓔珞]·드리개장식의 가장자리를 꾸미는데 많이 쓰이나, 경주 보문동 부부총(夫婦塚) 출토의 귀고리는 굵은고리太環 표면에 금알갱이로 거북등과 꽃잎무늬를 세밀하게 장식하였다. 백제의 예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의 곱은옥의 금모에 나타난 것이 가장 섬세하고 대표적인 것이다. 누금세공의 기법은 원형 기점의 12왕조 때에 출현하여 메소포타미아·그리스 등지에서 성행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한대(漢代)에 나타난다.'(밑줄 친 것은 틀린 용어: 필자)

대개 이런 정도의 설명인데 독자는 이제 이 설명에서 올라보지 않은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다가 누금기법이 왜 생겼는지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데아가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제작기법이 고안된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조형미술의 완성을 위하여 제작기법이 개발된 것이다. '무량보주(無量寶珠)'는 이미 내가 만든 용어이지만, 하나의 보주를 보고 무량보주라고 말하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이제 보주 안에 보이지 않는 무량한 보주가 가득 들어 있다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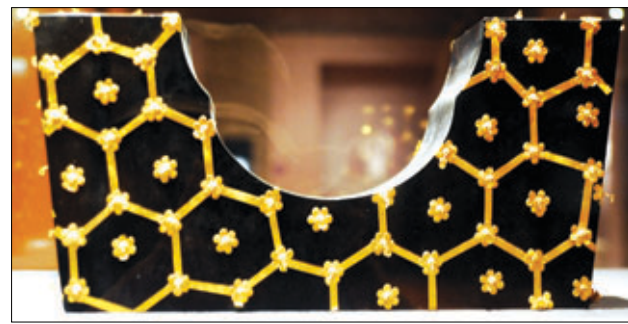


그림 ①-1 무령왕릉 출토왕 축침(足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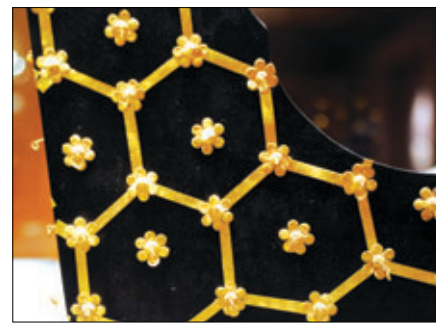


그림 ①-2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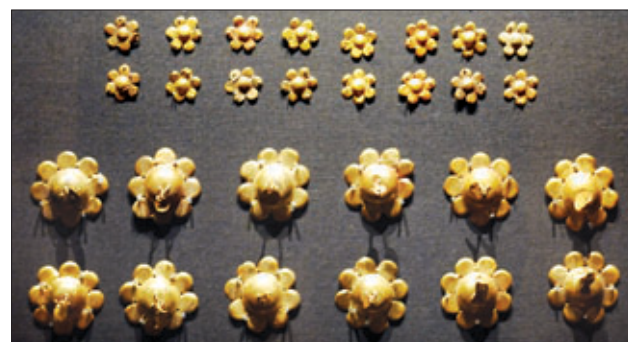


그림 ②-1 목판이나 그 밖의 부재에 부착하였던 금제 무량보주. 중앙의 큰 보주에서 사방으로 보주가 생기는데, 반구형의 위에 구멍을 뚫고 금실로 작은 원형 금판을 이은 것은 바로 큰 보주에서 작은 보주가 나오는 모양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무량보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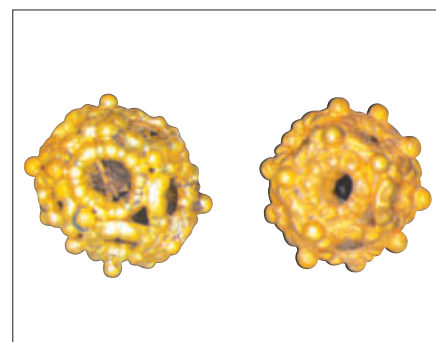


그림 ③ 금제누금목걸이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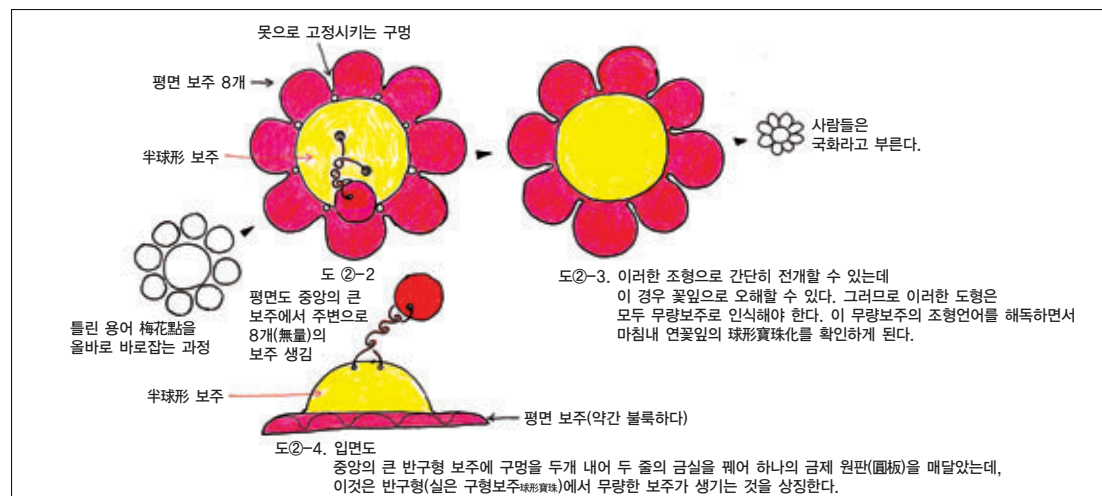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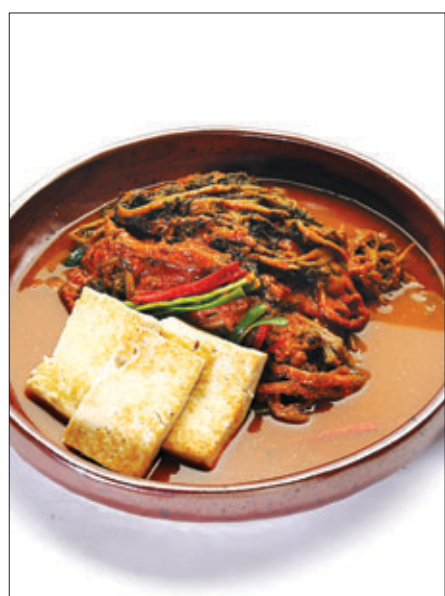


그림 ②-2 무량보주의 채색분석

藥 이 되는 사찰음식

겨울철 비타민D 시래기로 보충하자



무청 시래기 전골

△재료(4인 기준)

- 무청 시래기 500g, 표고버섯 5장, 두부 1/2모, 청홍고추
- 맛국물 7컵,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1큰술, 된장 3큰술, 들깨가루 5큰술, 국간장 약간

△만드는 법

- ① 말린 무청 시래기는 찬물에 담가 약간 불어나면 불에 올려 부드럽게 삶는다.
- ② 삶아진 무청은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긴다.
- ③ 껍질 벗긴 무청에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들깨가루를 넣고 조물 조물 양념에 베이도록 무친다.

④ 냄비에 양념된 무청 시래기를 담고 볶은 다음 맛국물을 부어 끓이고 마지막에 청홍고추를 넣어 한 번 더 볶아 낸다.

묵은 나물밥

△재료(4인 기준)

- 멥쌀 2컵, 찹쌀 1/2컵, 삶은 밥공 1/2컵, 다시마물 2.5컵
- 묵은나물(취나물) 300g, 국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 양념장 - 국간장 2큰술, 다시마물 2큰술, 들기름 2큰술, 청홍고추 다진 것 1개씩, 통깨 2큰술

△만드는 법

- ① 멥쌀과 찹쌀은 깨끗이 씻어 찬물에 30



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② 밥공은 씻은 후 물에 3시간 정도 불린 후 부드럽게 삶아낸다.
 ③ 묵은 나물은 부드럽게 삶아 찬물에 담귀 특유의 아린맛을 제거한 다음 물기를 꼭

짜낸다.

④ 묵은 나물에 국간장과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을 한 다음 냄비에 담아 나물과 쌀을 넣고 볶은 후 다시마물을 부어 밥을 짓는다.
 ⑤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묵은 나물로 고소한 비빔밥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겨우내 우리식탁의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좋은 식재료다. 무청은 햇볕에 말리는 것보다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에서 말린 것이 엽록소가 많이 남아 있어 푸른색을 띠고 있고 영양성분이 우수하며 물의 흡수성도 좋다.

특히 비타민 B, C는 말린 후에도 손실의 거의 없으며 음식을 만들었을 때도 잘 쪼여지며 연백색, 지방 등의 여러가지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흡수를 촉진시켜 준다. 무청은 특히 간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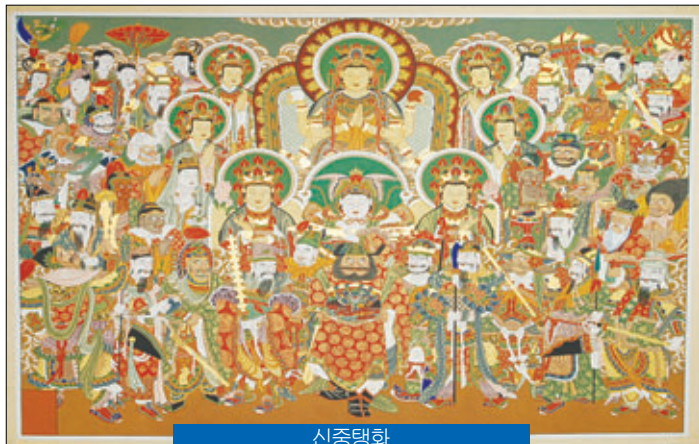
있고 식이섬유와 칼슘, 철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이다. 단, 요리에 이용할 때는 부드럽게 삶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야 역제지 않고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며, 삶은 후 찬물에 담구 특유의 마른 나물의 냄새를 없애야 깔끔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겨울철에는 무청으로 는 나물지킴이를 만들어 먹어도 별미이다.

곤드레나 취나물 등 묵은 나물을 이용해 볶아 먹거나 밥으로 많이 해 먹는데 밥으로 할 경우는 나물을 부드럽게 삶아 국간장과 들기름으로 양념을 한 후 볶아서 지어야 맛이 나지 않고 고소하고 맛이 있다. 또한 여기에 칼칼한 청양고추를 약간 썰어 넣은 양념장을 곁들여 비벼 먹으면 입맛을 돋구준다. 그리고 양념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 발효액을 약간 섞어 쓰게 되면 좋다.



김은연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통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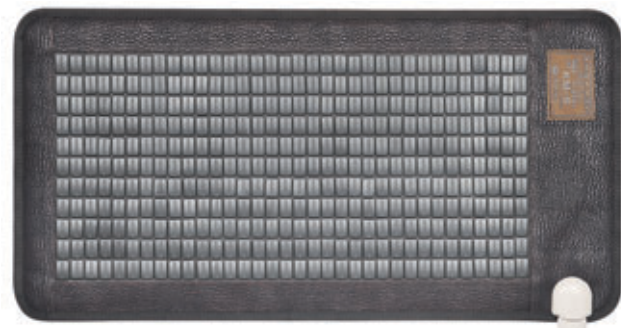
010-3219-7180 / 010-3743-5167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가기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cm x 100cm | B형 65cm x 165cm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침시에는 온열 매트로!!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 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율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매원: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농협 355-0014-5055-43